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월 22일(주일) 제1427호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

2023 목회사관학교 1월 30일~2월 3일 마임비전빌리지
온누리교회 목회자 331명(전임 177명, 파트 154명) 참석



사진은 지난해 목회사관학교.

2023 목회사관학교가 1월 30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마임비전빌리지(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443번지)에서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를 주제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331명(전임 177명, 파트 154명)이 참석한다. 전임목회자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파트목회자 2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 주강사는 이재훈 담임목사다.

이번 목회사관학교는 요일별 주제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월 30일은 ‘목회자 자기돌봄’이 주제다. 이재훈 담임목사 강의, 하용조 목사 추모다큐 시청, 토크쇼 ‘목회자의 가정돌봄’이 이어진다. 1월 31일은 ‘공동체

돌봄’을 주제로 강의와 사례발표를 한다. 이기원 목사가 ‘인생주기에 따른 돌봄’을 주제로 강의, 이기원 목사(목회기획)와 노치형 목사(목회행정)가 ‘어려운 성도 돌봄’과 ‘공동체 돌봄 노하우’를 주제로 사례발표를 한다. 2월 1일은 ‘성도 돌봄’을 주제로 사례발표와 나눔, 소그룹모임 등을 한다. 1월 30일과 31일 저녁에는 ‘교회와 목회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한다.

이기원 목사는 “2023년 목회사관학교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노하우를 배우고 익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회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철학과 비전, 사역 방향을 공유하고, 쉼과 휴식,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장(場)이다. 지난 2003년 시작돼 올해가 21번째다.

한편 신임 목회자들을 위한 ‘신임 목회사관학교’는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는 2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목회철학과 DNA를 배우고, 온누리교회 목회자로서의 합당한 목회 비전과 영성을 익힌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3 선교헌금작정 결과 집계

2023년 선교헌금작정 결과가 집계됐다. 2023년 선교헌금작정에서 온누리교회 성도 3,430여 명이 17억 8천만 원을 신규로 작정했다.

김홍주 본부장(2000선교본부)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선교에 동참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2023년에도 온누리교회 선교를 위한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직 선교헌금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온누리교회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2000선교본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616

2023 Acts29 비전 컨퍼런스

1월 27일(금) 서빙고 두란노홀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의 쉼과 충전, 교제를 위한 ‘2023 Acts29 비전 컨퍼런스’를 1월 27일(금)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이재훈 담임목사 비전의 말씀, 권역별 보고, 지역별 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미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아부다비, 홍콩 CGN World 전임 목회자, 비전교회 협력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오는 1월 28일(토)과 29일(주일) 주일예배에서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한다.

부천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부천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를 오는 1월 29일(일) 오전 11시 30분 부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정재욱 목사가 취임하고, 윤길중 목사가 이임한다. 부천온누리교회 담임목사가 이취임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윤길중 목사는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다.

2023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2023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를 온누리신문 홈페이지(news.onnuri.org)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 QR 코드로 다운받을 수 있다.



길,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

2022-20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막 내려

2022-20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40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길, 진리, 생명’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12일(월)부터 2023년 1월 20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됐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했다.

2022-20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주간인 1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생명’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16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17일 ‘생명의

양식’, 18일 ‘풍성한 생명’, 19일 ‘부활 생명’, 20일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설교했다(메시지 12-13면).

2022-202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새벽기도의 제단을 쌓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 홍성호 장로(당회서기)는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었다”고 했고, 임정열 장로(교양은 평공동체)는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한다

”고 고백했다. 김재만 집사(동작공동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다”고 말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새벽기도회의 은혜는 계속된다. 서빙고 오전 6시 본당, 양재 1부 오전 5시 20분 사랑홀, 2부 오전 6시 30분 기쁨홀, 부천 오전 6시 본당, 수원 오전 5시 50분 본당, 대전 오전 5시 20분 본당, 오전 6시 세종교육관, 남양주, 평택 오전 5시 20분 본당, 인천 오전 5시 30분 본당, 강동 오전 6시 20분 본당, 양지 오전 6시 시안홀, 영종 오전 6시 하늘프라자 403호에서 새벽기도회가 이어진다.

/ 정현주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모든 사람에게는 지우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고, 남기고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기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세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둘째, 빈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빈 무덤을 흔적으로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두고 있던 무덤의 문이 열렸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이 이 땅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었던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을 이루셨는데 십자가 고통의 흔적을 남겨놓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와 같은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러한 제자들을 복음과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흔적을 남겨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의 흔적을 본 자들이 확신을 얻었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고난의 흔적은 <요한계시록> 기록으로 볼 때 영원한 예배를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중심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제, 예배의 내용, 예배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흔적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임에도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신 까닭은 선교와 예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은 당신에게 흔적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17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살이를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씩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습니다. 돌과 채찍에 맞은 흔적과 상처가 그의 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 대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야 하는 교회 역사에서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흔적과 상처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써 온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책망하고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교회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을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었던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한 것은 인간의 의와 공로, 자신의 행함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등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을 인간의 공로와 헌신, 인간의 의를 가미한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1장부터 책망하고, 도전하며, 그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다가 결론 부분에서 “내 몸의 흔적을 보아라”면서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고 헌신했는지를 나타내면서 자랑의 도구로 삼는다면 앞서 권면한 모든 교훈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아느냐?”라는 고백은 인간적인 의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을 왜 강조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당신들이 알아주어야 한다’ 또는 ‘당신들도 이렇게 고생해야만 한다’는 육체를 자랑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요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12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요구하는 희생과 핍박, 헌신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육체의 겉모양을 꾸밀 때 나타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기를 꺼려하고, 그것을 교리적인 한계처럼, 이전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고, 육체의 겉모양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교양과 같은 종교와 문화 속에 머물 때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어떤 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파이프오르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말씀밖에 없는 교회는 지루하다. 무엇인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온통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화나 감동적인 스토리,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라면 어쩌면 갈라디아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만 들어서 “새로운 것 없습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종교적, 문화적으로 만들어 가려 하고, 육체를 자랑하려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어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나쁘고 악한 사람들만 곤경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도 곤경에 처합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의 참혹함, 십자가의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세련된 종교의식의 문화로 표현할 때 육체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거의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화려한 의식들과 시설, 성상들을 모두 버린 것입니다. “가운이 필요하다면 검정색으로 단순하게 하나를 입어라. 그것도 안 입을 수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과 하나 되고자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예배당을 보면 강대상만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삶, 증인의 삶, 선교의 삶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를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은 모두 옛날식으로 했고, 강대상만 앞에 갖다 놓은 예배당도 있습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십자가에 집중하기보다 그 밖의 많은 요소들을 더욱 중요시 하고, 어떤 의식이나 절차, 문화와 종교화되는 것들이 결국 무엇을 가로막습니까?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선교의 걸림돌은 사실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이념에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교회,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은 교회,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교회가 걸림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겼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14절).

바울 당시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되는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가 강렬히 빛이 나는 꿈을 꿔다면 ‘아, 은혜로운 꿈을 꿔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 십자가 꿈을 꿔다면 악몽을 꾸 것입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도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경건하고 교양 있고 보수적인 액세서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십

자가를 걸고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왜 자랑할 것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라는 단어가 그의 전문 용어라고 할 만큼 자주 사용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59번 사용되었는데 바울이 55번을 사용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 사용했고, <고린도전후서>에서는 39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와 꼭 맞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풀어보면 ‘영광을 구하다’, ‘어떤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어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등입니다. 원문적인 의미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랑입니다. 둘째,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서 삶의 의욕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서 삶의 의욕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삶의 중심이 되고 지탱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 자랑이 되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삶에 의욕을 일으켜 기뻐하게 했고, 삶의 중심이 되고 지탱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삶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흔적이 되는 삶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한 세 가지 이유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만을 자랑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교수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진리는 사람들에게 거슬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둘째,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신념들, 이 시대의 풍조, 그리고 왜곡된 이념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만의 세상 논리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이 세상을 못 박았고, 더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판단과 평가,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셋째, 십자가가 나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모든 이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으로 세상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더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세상에 대해 죽었음으로 더는 세상이 그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진리를 증거하는 삶

십자가의 도를 믿고 체험하는 삶이 나타나

는 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자신의 공로로, 자신이 인정받아야 하는 공로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에 자신도 못 박혔고, 세상도 못 박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무엇을 흔적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훈장이 아니라 흔적을 조사하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삶, 증인의 삶, 선교의 삶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바울의 삶 속에 임하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진리가 무엇이나?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인간을 이성, 의지, 욕망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았다.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인 이성, 선을 추구하는 능력인 의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능력인

감성의 진선미는 서양 철학에서 인간 이해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이성의 능력을 연구하던 부분은 어떻게 지식이 가능한지를 밝히는 철학의 인식론으로, 선을 추구하는 의지의 능력을 연구하던 부분은 윤리학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감성의 능력을 연구하던 부분은 미학과 예술로 발전했다.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뒤쪽에 있을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동물적 속성에 가깝다. 앞쪽에 있을수록 가려져 있고, 신적인 속성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 진리를 진선미 중에서 가장 앞자리에 두었다. 많은 학교 교시 혹은 교훈 속에 진리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공부하고, 학문을 익히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진리는 나의 빛’, ‘진리를 알고 옳게 생각하여 바르게 행하자’ 등 배움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란 꼭 찾아야 할 목표이다.

사전에서는 진리를 첫째,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 둘째,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명제나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않는 바른 판단이라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정의는 참 혹은 거짓을 선택하는 진위형 문제에서 참인 명제를 찾을 때의 정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를 말하는 것이라면, 첫째 정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공자는 이를 ‘도(道)’라고 표현하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다신론과 범신론 종교와 모든 무신론에서는 진리가 상대적이며 변화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유대-기독교-이슬람의 일신론 종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이 있고, 그 신으로부터 계시된 절대 진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 종교의 진리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르다. “진리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문을 받던 중에 자신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혔을

생 이래 공교육은 국민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진리의 추구보다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 양성을 지향한다. 일본의 황국신민교육과 미국의 실용주의 국민교육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역시 좋은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상식교육과 입시교육이 공교육의 목표가 되었다.

대학 교육 역시 실용주의에 빠져 취업교육으로 흐르고 있어서 참된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부족하다. 대학 신입생들의 교양을 위한 추천 도서는 무신론자들의 베스트셀러로 가득 차 있다. 다윈, 도킨스, 세이건, 하라리 등의 유사 과학자들과 칸트, 루소, 마르크스, 니체, 푸코 등의 무신론 철학자들의 책이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세상에서의 명성이 그들의 주장을 진리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주장은 일리가 있을 뿐 진리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것처럼 그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주장했다 하더라도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니다. 절대 진리만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명확히 알고 난 이후에 어떤 책이든 분별하면서 읽을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만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어떤 책이든 분별하며 읽을 수 있다.”**

(朝聞道夕死可矣) 할 만큼 진리를 알고 싶어 했다.

진리가 모든 배움의 목표라면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추구할 방향성을 제공하는 “절대 진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범신론이나 다신론 종교에서는 다양한 신으로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상대적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 또 인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 같은 무신론에서는 유물론적 진리를 주장하면서 진리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 진화한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절대 진리란 있

때 빌라도가 반문한 말이다(요 18:38). 예수님은 더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빌라도도 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도마의 질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고 하시며 스스로 진리임을 명백히 하셨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단의 괴수로, 이슬람에서는 선지자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부인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공교육이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대 민족주의 국가의 탄

특별기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조준목 목사
(이수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기 좋거나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사실이고, 실제이기도 하다.

고, 실제이기도 하다. 역사에 영향을 끼치며, 인류가 가진 문제들에 진정한 답을 주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을 갖는다. 세상은 원래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어떤 특정 집단 혹은 그룹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세상이 어둡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나 체제의 변화, 어떤 그룹 사람들의 해체로는 불가능하다. 각 개인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걸을 때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어떤 거대한 사회의 문제라고 해도, 각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책임을 크게 보는 것이다.

근래 대한민국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대체해 번져가는 생각의 흐름을 보면 염려가 된다. 이 사회 문제들의 원인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다툼이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그 특정 집단은 대개 기독교층 혹은 사회적 강자라고 여겨지는 그룹이다. 고용인에 대하여 고용주가 그렇고,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그러하며, 여자에 대하여 남자가 그렇고, 젊은 세대에 대하여 기성세대가 그러하다. 사회를 상반되는 두 그룹으로 나누고, 대립적인 구조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강자 그룹은 약자 그룹을 착취하고 억압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영향이다. 이 관점이 염려되는 것은 그 진단이 틀렸을 뿐 아니라 그 관점이 내리는 처방이 악하기 때문이다. 약자는 힘을 모아 강자에게 대항해야 하며, 그 구조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하는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다툼과 투쟁, 폭력적 방식의 혁명은 결코 사회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점을 외치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성경은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빌레몬서>를 예를 들 수 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했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 보내며 이렇게 편지한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몬 1:16).

주인과 종으로 이루어진 사회제도를 말하지 않는다. 주인에게 그 종을 사랑하는 형제 대하듯 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종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주인을 대하라고 권면한다. 이것은 결코 종 제도를 지지하는 태도가 아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 구조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폭력적 방식으로 체제를 무너뜨리라는 주문보다 오히려 더 혁명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종을 형제 대하듯 하는 주인이 있는 집이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실제 적용되었다.

최근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언급했던 조덕삼 장로와 이자의 목사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자익은 원래 조덕삼의 머슴이었다.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장로 장립의 순간이 왔고,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후보에 올랐다. 놀랍게도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 조선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조덕삼은 이자익을 칭찬하며 그를 높였고, 이자익이 선교사를 대신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는 교회 바닥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평일에는 이자익이 머슴으로서 조덕삼을 섬겼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더욱 지원했고, 마침내 이자익이 목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 주는 당시 신분제의 해답이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강력한 처방이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그 세계관이 이 세상에 참된 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관점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짐으로써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는 방법 2

‘ACT 모델’을 활용하세요!

따뜻한 애정, 자율성 존중, 적절한 제한



민성원 박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전문 자문위원, 미국
공인 심리상담전문가
(NCC))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얼마 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나온 답변은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며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라고 했다.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며 잘 양육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리면 부모·자녀 관계에서 힘겨루기(power-struggling)가 시작되면서 일상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된다. 아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생후 2~3년이 되면 자율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싫어”, “아니야. 내가 할 거야”라는 말이 잦아진다. 슬슬 생때도 나오고, 자기 소리가 나온다. 손을 잡고 걸어가지는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도로 위로 줄행랑치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 계단에서 아이를 안고 가는 부모에게 내려 달라 발버둥 치며 구태여 자신이 걸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때 아이는 그동안 전적으로 의존했던 부모에게서 처음으로 독립해서 세상을 탐색하는 시도를 한다. 이 시기는 아이의 개성이 인정되고, 자발적으로 시도해 보고, 제한이 필요한 환경에서 조절 능력을 배우는 황금기다. 이때 발달하는 자기존중감과 자율성, 자기조절능력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는다. 아동 발달은 유아기에서만만의 과업이 아니다. 연속적인 선상에서 발달하고 성장한다고 본다. 한 아이가 생애주기 안에서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변화 선상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신뢰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주요하게 거론되는 요인이 바로 ‘부모의 양육 태도’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때로 양육 행동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나하나의 양육 행동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아이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나타내는 부모의 양육신념 체계가 반영되는 양상과 더 가깝다.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인지 및 정서 발달, 성격 형성과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쉐퍼(Schaefer)나 바움린드(Baumrind)는 양육 태도를 ‘애정-거절’, ‘심리적 자율-통제’ 차원에서 구조화시켰다. 아이에게 정서적 거절감과 통제가 높은 태도는 ‘독재·통제적 양육 행동’을 낳는다. 아이에게 애정은 있지만, 지나친 자율로 감독이 소홀한 태도는 ‘수동·허용적 양육 행동’을 낳는다.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는 경우, 극도의 통제와 극도의 자율이 혼란스럽게 반복되는 경우는 ‘무관심·방임적 양육 행동’을 낳는다. 가장 건강한 양육 행동은 부모로서의 권위와 아이에 대한 애정, 아이 수준에 맞는 적절한 제한과 감독이 어우러지고,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태도이다. 부모가 아이를 자율적 존재로 본다는 것은 아이가 어리더라도 부모의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아이 스스로 삶의 과제들을 경험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제적 태도가 심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과 기대감이 높고, 부모 본인의 불안도가 높아서 자녀와 친밀감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정받고 싶은 아이의 욕구가 역방향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힘겨루기가 극대화 된다. 아이에게 극도로 친절할수록 수동적인 태도의 부모들은 자녀의 부적절한 행동에 제한을 가할 때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 봐 제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의 욕구와 행동에 매우 허용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이는 자기 조절력을 배울 기회를 잃고, 문제해결 능력이나 자신에 대한 안전감에 빨간불이 켜진다. 이 모든 행동은 부모의 관점과 필요에서 나온 반응이지, 자녀의 발달환경에 적합한 반응이라 할 수 없다.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무조건적인 통제도 아니고, 허용도 아니라는 것을 부모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힘겨루기’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행동에 제한을 가하며 행동의 개선을 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힘겨루기 상황에서 ‘ACT 모델’로 자녀와 소통하라고 제안한다. A(Acknowledge the feeling: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라), C(Communicate the limit: 제한에 대해 소통하라), T(Target alternatives: 대안을 제시하라)이다.

예를 들면, 색연필로 여기저기 낙서하며 부모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아이에게 “A: 00아, 네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본데/ C: 그런데 이 벽은 그림을 그리는 곳이 아니야. / T: 여기예다(도화지 혹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벽면) 그릴 수 있어”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 예시에서 보듯이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부모의 큰 소리나 위협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단번에 아이가 하던 행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박하거나 분노가 담긴 목소리보다는(아이들은 목소리 톤에 따라 부모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의 행동으로 돌출할 수 있다) 단호한 목소리로 칠해야 할 장소를 보여 줄 것을 권한다. “색연필로 낙서하지마!”라는 짜증 섞인 부정적인 명령어 대신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는 인정하면서 그 행동은 적절하지 않기에 제한하고, 대신 그 행동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향 이동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적절한 장소에 대한 가르침,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수정의 기회가 담겨 있다. 삶의 환경을 교육적 기회로 사용하려는 의도이다. 물론 항상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물 흘러가듯 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아이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적인 존재로 부모에게 보내셨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눅 2:52) 원하신다. 하나님은 부모를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내셨기에 아이에 대한 양육신념이 무엇이고, 양육환경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38. 소망 가득한 새해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월 17일
본문 / 빌립보서 3장 10~16절



1.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을 달려갔어요. 바울의 고백이 담긴 말씀 구절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리스도 ()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 의 () 을 위해 () 를 향해서 쫓아갑니다”(빌 3:14).

2. 나의 풋대(목표로 삼아 세우는 대)는 무엇 인가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내가 쫓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입교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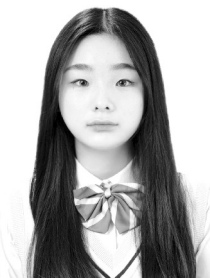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 계기는 5~6살 때였습니다. 예쁜 뮤지컬 활동을 하며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섬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6학년 때 동네 교회로 옮긴 이후로 중학생 때까지 교회를 매 주일마다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약속이 있다”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온누리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마치 교회를 다니지 않

내 삶에 대한 다짐!

는 사람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교를 받은 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입교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입교 후 제 삶에 대한 다짐은 매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킬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양하은 학생
(서빙고 파워웨이브)

명화로 읽는 성경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상징과 그 의미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토끼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 가족(1525~1530)’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성경에는 많은 동물이 나온다. 그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이 아무래도 양(羊)일 것이다. 양은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동물이기도 하다. 문계구름처럼 하얀 털을 가진 양은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양들은 푸른 초장과 울창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를 믿고 따른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선한 목자’이다.

까마귀는 이중적인 상징성을 갖는다. 어떤 경우에는 불길함과 이교도의 상징이다. 레위기에서도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예지와 점술의 동물로도 인정받는다. 창세기에는 홍수가 시작된 지 40일이 지나자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또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 그릿 개울가로 도피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시킨 동물도 까마귀였다(왕상 17:1~6).

뱀도 이중적인 상징이 있다. 에덴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은 유혹하는 악마, 사탄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께 불충하는 죄를 저질러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민 21:8).

이때의 뱀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지며, 구원의 상징이다. 이처럼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동물이 그냥 언급만 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지만, 나름대로 상징성을 띠고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이다. 계묘년은 십이지(十二支)상으로 토끼의 해다. 간지를 따지면 토끼가 동양적인 상징만 있는 것 같지만, 토끼는 일찍부터 가족으로 사육하는 등 사람과 가장 친근한 동물 중 하나다. 우리나라 민담 ‘영리한 토끼와 어리석은 호랑이’는 피가 많고 영리한 토끼가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이야기이다. 토끼는 왜소한 체구지만 영특하고 착한 동물로 그려진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이 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월트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나 실사 영화로 만들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 동화는 꿈속에서 여



티치아노 베첼리오가 그린 ‘토끼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 가족’(1525~1530년).

“새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순결과 아울러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번영과 풍요)이 충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주인공 앨리스가 회중시계를 든 토끼를 쫓아 가다 토끼굴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린이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열광한다. 그런데 합리적인 의식의 세계에만 집착하는 성인들은 이 동화가 왜 그토록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른다. 이 동화에서 주인공이 꿈을 꾸는 것은 무의식 세계를 상징한다. 꿈속에서 토끼를 만나 토끼굴로 들어가는 것은 본격적으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비합리적 공상의 세계에 마음이 열려있다. 여기서 토끼는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이드인 셈이다.

윤극영 선생의 ‘반달’이라는 동요가 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로 시작한다. 왜 선인들은 달의 계수나무 아래 토끼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옛날에는 사람의 수와 가족의 수가 그 집안이나 부족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했다. 전근대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소를 몇 마리 소유하고 있는지가 부를 상징하는 척도였고, 중동에서는 양이나 낙타가 그것을 대신했다. 그 사회에서는 다산(多産)을 하는 동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토끼는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다산의 이미지는 번영, 풍요, 행운으로 확대된다. 사람들의 눈은 다 비슷비슷한가 보다. 동근 달이 떴을 때 달의 무늬를 보고 토끼의 모습이나 발자국을 연상시키는 것은 동서양이

똑같았다. 그래서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달에는 토끼가 살고, 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에서 떡방아를 찧는다는 이야기가 민담이나 민화로 많이 전해진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순결,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기독교 세계에서 토끼는 ‘정욕’과 ‘순결’이라는 이중적인 상징성이 있다. 강한 번식력 때문에 토끼는 음욕(淫慾)의 상징이기도 하다. 기독교의 7대 죄악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나태, 탐욕인데 이 중에 음욕이 있다. 아담이 이브에게 사과를 권하는 장면이나 히어로 니무스 보스의 그림 ‘쾌락의 정원’ 지옥 장면에서 토끼가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토끼가 처녀와 함께 등장하면 음욕에 대한 승리, 즉 순결을 의미한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림에 함께 나타나는 토끼는 순결의 상징이다. 다산의 상징은 번영과 풍요를 넘어 여성의 원리로 확대되고, 자연스레 정욕과 음욕으로도 확대된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순결을 상징하기도 한다.

티치아노 베첼리오가 그린 ‘토끼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 가족’(1525~1530년) 속의 토끼가 그 좋은 예이다. 이 그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전시된 뒷방에 걸려 있어 주목받지 못하는 여러 그림 중 하나다. 하지만 티

치아노 베첼리오 역시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던 피렌체와 쌍벽을 이뤘던 베네치아 미술의 거장 아닌가.

그림 정중앙에서 오른손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왼손으로 하얀색 토끼를 부여잡고 있는 여인이 동정녀 마리아이다. 이 그림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아마 아기 예수님 가족이 헤롯 왕의 유아 살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일 것이다.

그림 오른쪽에서 양들을 쓰다듬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다. 여기서 주의를 끄는 것은 그림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아기를 감싸고 있는 마리아를 도와 아기 예수를 안아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서구에서는 잘 알려진 여성 순교자 ‘성 캐서린’이다. 성 캐서린은 서기 4세기 경 이집트 한 부족의 공주였다. 부친 사후 왕위를 계승했다. 그녀는 이교도였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녀는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 당시 로마 황제의 개종 명령을 어기고 저항하다 고문 끝에 순교한다.

지금도 이집트 시나이반도 시내 산 초입에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다.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예수님 사후 4세기 이후 인물인 성 캐서린을 아기 예수님과 동일한 시공간에 놓았다. 서양 기독교 세계에서 성 캐서린이 그만큼 전설적인 순교자임을 짐작하게 한다.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성 캐서린이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마리아가 왼손으로 하얀 토끼를 부여잡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녀가 성령으로 임태한 순결한 동정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토끼는 특정 인물인 마리아를 가리키는 지물(事物, attribute) 역할을 한다. 마리아의 발치에 놓여있는 과일 바구니에 사과와 포도가 보인다. 사과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려질 때는 원죄를 상징하지만, 순결한 처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려질 때는 원죄의 극복 즉, 구원과 속죄를 상징한다. 포도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수난을 상징하기도 한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다”(요 15:1).

티치아노 베첼리오가 포도를 그려 넣은 것은 명백하게 성찬 포도주로 구속된 원죄의 상징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셉이 쓰다듬고 있는 양들은 바로 인류의 속죄를 위한 희생양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티치아노 베첼리오가 이 그림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2023년 새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순결과 아울러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번영과 풍요)이 충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맛있는 말씀 해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 5:20)

간혹 성도 중에 “삶 속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아 은혜가 크다”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크게 지어도 나중에 큰 은혜를 받는다면 오히려 적당하게 죄를 짓다가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말성경으로 읽어도 그 뜻이 비슷하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롬 5:20).

이 본문을 읽다보면 일단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크다고 한다. 둘 다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분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범죄를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복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보면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증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많다고 한다.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려고 고쳐 읽는다. 흔히 하는 해석은 이렇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 즉,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됨을 더욱 느끼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 해석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율법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율법의 기능 중에 죄를 깨닫게 하는 요소가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역지로 율법의 목적이 죄를 더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별로 없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롬 5:20, 공동번역).

로마서 4장 15절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롬 4:15).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으로 마음으로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속과 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율법을 교묘하게 벗어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율법은 아담의 범죄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 역할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했다. 따라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의미는 율법으로 인한 엄청난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그 범죄를 능히 덮고 이길 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죄를 많이 짓는 만큼 은혜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무리 강력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 강력한 죄를 덮을 만큼의 더 큰 은혜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다. 바닷가에 쌓아 올린 모래 더미가 아무리 커도 파도가 밀려오면 순식간에 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항상 크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새해맞이 추천도서

세상의 방향이 되어라!



〈방향의 시대, 방향이 되다〉
이재훈저 | 두란노 | 13,000원

연초 온누리교회 시무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책을 들고 와 한 챕터씩 읽어 내려갔다. 〈방향의 시대, 방향이 되다〉라는 제목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3년 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생겨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헤아리기 어렵다. 전쟁의 위협과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실질적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문제의 원인을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찾은 것인가? 그 이전에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각성 문제는 여기저기서 대두되

었다. 이를테면 포스트모던시대의 특징인 절대적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조, ‘사회적 성’을 이슈로 하는 문제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시도들을 멈춰야 하며, 자신의 해석과 느낌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책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전염병을 치르고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시절을 맞지 않도록 변화의 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섯 부분 안에 여러 단상이 이루어져 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변해버렸고,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왜곡되고 비뚤어져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 체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원래 스토리(Story)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시대의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고민하며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구습과 굳어진 문화를 서서히 깨뜨리는 효과가 있다.

성경에서 많은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 시대마다 진리를 왜곡하려는 많

은 시도에 맞서 때로는 광장에서 외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 말씀에 맞을 내리고 있었다. 신앙과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이 책은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우리의 이야기(story)들이 파편화된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고,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다른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게 해 주는 ‘거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있다. 방황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방향의 시대에 올바른 방향을 알고 갈 뿐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의 방향이 되라”고 한다. 세상이 급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 삼아서 멋지게 항해할 2023년을 기대하며 설 명절 연휴에 일독하기를 권한다.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한 챕터씩 함께 읽는 것도 좋겠다.



김종아 목사
(부천온누리교회)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친정 엄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엄마가 1년 전 쯤 발병한 류마티스 다발근통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난 1월 9일 류마티스내과 외래 검진을 하러 가셨다가 염증 수치가 너무 높게(13.7) 나왔습니다. 폐렴이 의심되어 입원하셨습니다. 예전에 폐결핵을 앓으신 적이 있어서 호흡이 힘들었는데, 폐렴에 걸려서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류마티스약이 면역억제제 종류라 몸 상태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폐렴으로 쉽게 간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매일 항생제 두 종류를 수액과 함께 맞고 계십니다. 하지만 염증 수치가 더디게 떨어지고 있고, 항생제 투여량이 많아서인지 부작용으로 위장장애와 설사가 너무 심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정말 걱정됩니다. 노인들은 염증 수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겁도 납니다.

엄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항생제가 잘 반응해서 염증 수치가 속히 정상(0.5~1)으로 내려오기를 기도해주시시오. 폐렴과 숨이 차는 증상을 완화되기를 기도해주시시오. 속히 항생제를 중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위장이 안정되고, 몸 상태가 편안해지기를 기도해주시시오.

/ 이보경 성도(서대문공동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순장님이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은 크리스천답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크리스천은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어릴 적 크리스천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를 한 적이 있었다. 크리스천은 화를 내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생각이 틀렸음을 나를 통해서 고스란히 증명하고 말았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 없지 않다. 욕이 입가에 맴도는 상황을 마주하지 말란 법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죄의 유혹과 도전에 노출되어 있기에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다. 인간의 감정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한 부분이기에 비록 그것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는 분노, 좌절,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의 존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이다. 시편의 주된 저자 다윗은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고백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라며 대적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들이 자신을 위협할 때 분노와 억울함,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

부정적인 감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과 분노를 아신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할 때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하고 인정하

지 말고, 깨어서 분별하고 대적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은혜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3)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온전함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뻐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충분하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과 인격, 성숙과 성장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라고 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은 선택사

항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의 실체와 원인을 분별할 수 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것이다.



정한효 목사
(W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대화, 순서가 중요하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데 옆집 엄마가 왜 꼼꼼하게 비닐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느냐고 핀잔줬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외로 이런 종류의 질문에서 적절한 말을 찾아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남편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정보와 사실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다소 있다. 남편은 아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흐름을 읽어내기 어렵고, 특히 정보 위주의 이야기를 들은 입장에서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 아내의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판단자의 역할을 자처하곤 한다. 물론 아내가 판단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내가 옆집 엄마에게 핀잔을 들었다고 했을 때 남편이 한참 고민한다. 분명 함정이 있는 질문 같은데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좀처럼 적절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 심각하게 고민한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밖에 일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집안일 때문에 머리 아프게 안 하면 안 돼?”

남편의 대답을 들은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고, 남편은 자신의 대답이 정답의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느낀다. 남편이 정답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엔 해결 중심적인 답을 내놓는다.

“그 엄마 누구야! 내가 가서 따질게.”

물론 이 말도 상황에 적당한 대답은 아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반응을 다행히 알아차린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원래 비닐은 분리배출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꼬이고 꼬여서 이번엔 아내를 공격하는 말을 하고 만다. 이렇게도 남편이 선택했던 최종 선택의 대답은 아내의 마음에 채택되지 못한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마음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대화가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이나 미성숙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며, 어떻게 하면 아내가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위로 방식으로 말한 것이다. 대화 중 단어나 문장 선택에 있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다소 경험이 부족한 대화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부부는 더 성숙한 대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남편은 그 상황에서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사실적인 측면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마음과 정서를 만지는 감정적인 점에서 말이다. 남편이 다양한 대답을 해주는 그 이면에는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해주

기 위한 마음, 아내가 이런 일로 억울한 일을 더는 당하지 않도록 해주려는 마음, 핀잔을 주었던 대상에게 대신 화내주면서 달래주기 위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다. 마음을 이해해주고 먼저 알아봐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남편은 이 상황에서 감정적인 면을 먼저 말하고 아내를 이해해주는 게 적절했을 것이다. “억울했겠다”, “당황했겠다”, “화가 났을 거 같아”라는 말로 먼저 아내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게 이 대화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대화의 흐름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정 숨기는 것을 수없이 훈련해왔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대화의 핵심 주제로 떠올리는 게 매우 어렵고 어색할 것이다. 물론 아내들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감정적인 접촉 혹은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 주는 것을 매우 필요로 한다. 자신이 충분히 공감받고 있다고 느낄 때 위로를 경험하고, 어려움에서 일어서며, 상황 가운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부 대화에서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찾기가 힘들다면 물어보는 것도 좋다. “옆집 엄마가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말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마음이 읽어지면 “당신 억울했겠네”, “무례하게 핀잔받아서

화가 났겠네” 정도의 수준에서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주거나 알아주는 말을 돌려주는 게 적절하며 수준있는 대화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서로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으로 바쁘겠지만, 잠시 해결책에 대한 제안은 접어두는 게 좋다. 우선 마음을 읽어주고 머물러야 한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달리다가 넘어져서 너무 아파!”라며 엉엉 울면서 부모에게 왔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이번의 실패를 기점으로 다음부터는 주의하자”라는 조언이 필요하겠는가? 당연히 상황 파악보다 아픔을 보듬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부대화에서도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시작 단계가 꼭 필요하다. 이 단계를 밟고 난 다음 해결책을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대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는 마음

을, 그리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 서로의 마음을 우선 알아주고, 용납해주고, 공감해주고, 해결책도 담담히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시 34:18).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2023 차세대 겨울 사역

지난 2020년 차세대 파워웨이브 패션집회.

패션집회 ‘Follow The Way’

겨울캠프 ‘우리 몸으로, 풍당!’, ‘창세기 대홍수’

2023 차세대 겨울사역이 시작된다. 파워웨이브 패션집회는 ‘Follow The Way’를 주제로 막 오른다. 서빙고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는 2월 11일(토)부터 13일(월)까지 전주대학교, 양재온누리교회는 2월 18일(토)부터 20일(월)까지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캠퍼스는 수원과 부천, 대

전, 강동 연합으로 1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청양 송의 청소년수련원에서 집회를 연다. 다른 캠퍼스도 각자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예수님의꿈아이 겨울캠프는 유치부 2월 12일(일)과 19일(일), 유년부 2월 11일(토)과 12일(일) ‘우리 몸으로, 풍당!’을 주제로 열린다. 꿈이자

라는땅 겨울캠프는 ‘창세기 대홍수’를 주제로 초등부 2월 18일(토)과 19일(일), 소년부 2월 25일(토)과 26일(일) 개최한다. 서빙고와 양재, 도곡의 겨울캠프 일정이 같고, 캠퍼스는 각자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처소 이전 감사예배

‘엘림하우스’는 오아시스, 쉼터, 사랑의 교제 場

남대문희망공동체가 새 예배처소 ‘엘림하우스’ (용산구 후암로 57길 9-3)로 이전(移轉)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처소 이전 감사예배를 지난 1월 18일(수) 엘림하우스에서 드렸다. 남대문희망공동체 봉사자들과 동자동 쪽방촌 주민, 사회선교부 리더십,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선교재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훈 목사는 “엘림하우스가 지

친 영혼들이 찾아와 생명과 쉼을 얻고,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동자동 주민 안만정 씨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싶다”고 했고, 독고영 집사(남대문희망공동체 팀장)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삶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살아나갈 힘을 얻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 정현주 기자

“말씀 배우며 자라요!”

꿈아이놀이터 어린이 및 교사 모집

영유아(20~36개월)가 부모와 함께 오감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신앙 교육 프로그램 ‘꿈아이놀이터’ 어린이 참가자 및 교사를 모집한다.

꿈아이놀이터는 오는 3월 11일(토)부터 5월 20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층 꿈아이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구글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QR코드 참고).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구글폼은 2월 13일 오전 10시 오픈한다. 어

린이 참가자는 2월 13일부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15만 원.

꿈아이놀이터 교사도 모집한다.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운영, 자료 제작 등의 달란트를 가진 성도가 대상이다. 꿈아이놀이터 교사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진다.

문의: 010-8877-3584



CGNTV, <우리 몸으로, 풍당!> 출간 이벤트

1월 24일까지 소개 영상 시청 및 응원메시지 남기기

CGNTV가 <우리 몸으로, 풍당!> 출간을 앞두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1월 24일(화)까지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몸으로, 풍당!> 소개 영상을 시청한 다음 응원메시지를 남기고, 작성한 댓글을 캡처해서 기독 OTT 풍당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된다(이름, 연락처 포함). 당첨자에게는 동화책과 스티커북을 선물한

다.

<우리 몸으로, 풍당!>은 성경에 기반한 인체과학 키즈 콘텐츠다. 그 첫 시리즈가 혈관 탐험 이야기를 담은 <우리 몸으로, 풍당!>이다. <우리 몸으로, 풍당!>은 1월 29일(일)부터 두란노서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0

‘온누리 예배찬양학교’ 훈련생 모집

온누리 예배찬양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2월 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온누리 예배찬양학교는 참된 예배자이자 찬양인도자를 세우는 과정이다. 예배와 찬양의 성경적 의미, 찬양 발성, 찬양 인도 등 예배 인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배운다.

문의: 02-570-7277

예수제자학교(JDS) 2월 19일까지 참가자 모집

서빙고, 양재 주간반, 저녁반, 수원, 인천 저녁반 개강

2023년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에서 2월 1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수원 저녁반, 인천 저녁반 총 6개 반이 열린다. 주간반 40명, 저녁반 50명씩 모집한다. 서빙고와 양재 주간반 2월 28일(화), 저녁반 2월 25일(토), 수원과 인천 저녁반 3월 4일(토) 개강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입학신청서(교역자 확인 필수), 추천서(교역자, 교사, 직장상

사, 은사, 지인 등 추천자 직접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다음 사진 2매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주간반은 여성만, 저녁반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서빙고 주간 010-4173-3134

서빙고 저녁 010-9182-6804

양재 주간 010-6427-5580

양재 저녁 010-9019-4648

수원 저녁 010-2583-7607

인천 저녁 010-7334-9705

본부 02-3215-3625, 3220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소개할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 개설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카카오톡에 ‘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을 검색하면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을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 ‘채널 메뉴’에서 ‘간편 안내’ 항목을 누르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

다. 매주 온누리신문을 구독할 수 있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

사제보와 ‘말씀과 지면’에 게재할 중보기도 및 말씀해설 등도 요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세미나 참가자 모집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 세미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3월 28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4월 4일과 11일에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김찬숙 목사(선한목

사교회 부목사)가 강의한다.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성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4만 원이다.

문의: 02-2078-3271

■ 예수제자학교(JDS) 간증



/ 이수영 성도(서빙고 24기 수료)

무익한 종, 간사로 서다

2021년 12월, 허리 디스크 파열로 100미터도 걸을 수 없어 직장을 휴직해야 했다. 휴직으로 얻게 된 시간을 더욱 뜻 깊게 보내고 싶어졌다. 그때 주 2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된다며 예수제자학교(JDS)를 소개받았다. ‘치료도 하면서 은혜도 받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신청했다. 여름 아웃리치가 있는 줄도, 주 5회 교회에 가게 될 줄도, 매일 숙제하느라 허리 치료받을 시간이 없게 될 줄 몰랐다.

3월, 드디어 예수제자학교(JDS)가 시작됐다. 모든 수업과 말씀이 주옥같고 귀하게 다가왔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훈련을 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조 간사님이 계셨다. 간사님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바람막이, 길 안내자가 되어주셨다. 간사님의 섬김 아래 우리 조원들은 각자에게 맞는 형태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를 빼놓을 수 없다.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팀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누구하나 편하게 온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은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사랑만 받은 사람, 사랑을 못 받은 사람 등 부족한 모두에게 같은 말씀

과 같은 기도, 같은 환경이라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각자에게 꼭 맞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만 한 게 전부였는데, 모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치유의 은혜를 누렸다.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도 평안했다. 폭풍 가운데 나를 위해 반석을 세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배울 게 많은데 졸업해서 아쉽다. 특히 간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그분들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나도 간사로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은혜의 자리이지만 혹여나 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지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랜 기간 함께 하시고, 예수제자학교(JDS)로 나를 이끄셨으며, 그 하나님이 2023년 예수제자학교 학생들을 위해 벌써 일하고 계신다는 점이다. 올해 예수제자학교 학생들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선배 간사님들처럼 나를 초대하신 거라면 기꺼이 내드리고 싶다. 무익한 종이 예수제자학교(JDS) 간사로 선 것도, 값없이 택함 받은 것도 모두 주의 은총이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 순장학교 수료 간증



/ 박동한 성도(스브릿지공동체)

감사 가득한 시간!

지난해 여름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순장사관학교 과정을 수료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 중에 10주 동안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순장학교 첫 강의를 듣고, 조별모임에서 나눔을 하고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강의 내용이 참 좋았고,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잘 따라가기만 하면 성장할 수 있겠다는 감탄과 기대감이 생겼다.

그동안 큐티를 하면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간만 보냈는데, 매주 큐티나눔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었다. 간단한 구절에서도 매일 살아가는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1강부터 10강까지의 강의, 그리고 독서감상문으로 선정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과정이었다. 특히 8강 ‘전도하는 순’을 공부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다. 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과 사도행전적 교회의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이며, 교

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순의 가치는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있다는 내용이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테이블 리더님의 권면으로 우리 조는 이혼여 앞에서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진행했다. 주일 이른 아침에 모여서 교회서점에서 구매한 전도카드에 정성껏 메시지를 적고, 사탕과 초콜릿 등 간식과 함께 투명봉투에 넣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로 시작한 노방전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하심을 알게 해주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전도카드를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말씀하셨다. 교통신고 이후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위중한 상태이고, 기도 받기를 원하셨다. 조원들과 함께 그분을 둘러싸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 오늘 사역을 준비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었다.

순장학교는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순장학교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 차세대 교사의 고백



/ 김민숙 권사(서빙고 소년1부)

깨어 기도하는 교사!

온누리교회 차세대에서 19년째 교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나는 시어머니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 당시 두 돌 반이었던 큰아들을 첫 제자로 삼으면서 지역 교회에서 교사로 섬겼다.

온누리교회에는 2004년부터 출석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둘째 아들의 소년1부 학부모초청예배에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다. 2005년부터 다시 교사로 섬겼다.

소년1부 교사로 섬기면서 어려움도 있었다. 매주 의자 세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300명 가까운 아이들의 분반 공부를 돕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목이 더 아팠다. 지금은 교회에서 의자를 가벼운 것으로 교체해줬고, 헌신적으로 의자 세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수고를 많이 덜었다.

교사로서 내 삶을 되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소년1부 믿음의 공동체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위로와 힘,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해외 아웃리치를 가서 ‘Acts29 비전’을 함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적도 체험했다. 또 감사한 것은 큰아들과 며느리가 소년2부 교사, 둘째 아들과 남편은 소년1부 교사로 섬긴 것이다. 온 가족이 함께 섬기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에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싶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아이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교사로 섬길 것이다. 일대일제 자양육 양육자이자 복음전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싶다.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차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만큼 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51기 행복반 수료 간증



/ 김경석 형제(서빙고공동체)

행복 큐티 그리고 변화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 여러 중독과 강박,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믿음 생활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었다.

행복반 과정에서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내가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낮은 자존감의 쓴 뿌리를 물려준 육신의 부모님과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도 용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스스로에게 혹독했던 것과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태평양같이 풍성하고 깊은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정작 나는 스스로 사랑하지 않았다.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회개했다.

가족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오랜 시간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그로 인해 아내의 마음이 짝 단했다. 아내에게 깊이 용서를 빌었다. 아이들에게도 내가 무심

코 준 상처를 사과했다.

행복반의 백미는 ‘행복 큐티’라고 고백하고 싶다. 행복 큐티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묵상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교훈을 자세히 찾아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두세 가지를 쓰고 그날그날 실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돌발과 가시덤불 같았던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성령님께 삶의 문제를 직접 물어보았고, 성령님과 점차 친밀해져갔다. 행복 큐티를 하면서 좋은 변화들이 있었다. 아직은 서툴고 낯설지만,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게 편해졌다. 충동적인 나쁜 습관을 고집어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악습이 끊기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다. 아내와 하나 되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지내는 요즘 나는 작은 천국에 사는 것 같다. 행복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픈 가정이 많은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마음과 심령이 아픈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돕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장로칼럼

뿌리와 전도



홍범식 장로
(중중로공동체)

이제는 해가 바뀌는 것에 조금 무뎠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연말 연초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다. 요즘에는 ‘뿌리’와 ‘전도’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하고 있다.

내가 뿌리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은故 박성에 권사님의 장례식에서다. 박성에 권사님은 남편 되시는 신우권 장로님과 함께 ‘예수향교회’라는 사역을 섬기셨다. 예수향교회는 1994년부터 약 7년 동안 효창공원에 나온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 사역이었다. 예수향교회는 7년 동안 어르신들과 이웃들 40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박성에 권사님도 그곳에서 묵묵히 식사를 준비하셨다. 이 사역이 뿌리가 돼서 지금의 ‘온누리복지재단’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온누리교회에는 뿌리 같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많으셨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자면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세분이 있다. 한동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신故 김영길 장로님, 오성연 장로님,故 윤인길 장로님이다.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신故 김영길 장로님과 부총장으로 섬기신 오성연 장로님은 한동대학교를 운영하다 고소를 당해 교도소 동기가 되는 고초를 겪으셨다. 사무처장으로 섬기신 윤인길 장로님은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빗만 잔뜩인 대학 운영을 위해 죽을 고생을 하셨다. 많은 성도님이 이름도 빛도 없이 한동대학교를 위해 헌신했고, 그 덕분에 지금의 기독교 명문대학 한동대학교 명맥이 이어

졌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자란다. 뿌리가 허약하거나 땅 밖으로 나오면 나무는 죽는다. 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나는 과연 뿌리 같은 삶을 살았나 돌아보게 된다. 정말 부끄럽다. 뿌리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겠다.

요즘 사람들이 전도를 참 안 한다. 전도사나 목사는 일하느라 전도를 못 하고, 오래된 신자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전도를 안 한다.故 하용조 목사님은 일대일제자양육 ‘전도편’을 강의할 때면 책을 덮고 성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 남산이나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사영리를 가지고 직접 전도를 시키셨다. 성도들은 백 명에게 말을 걸어도 잘 안됐는데, 목사님은 열 명을 하면 한 명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셨다. 한번은 일주일 동안 100명을 전도하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대부분 할당량을 채우지를 못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100명을 다 채우셨다. 그 성도님은 식당에 가서도, 버스를 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사영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 한 성도님께 들은 일화다. 한 성도님의 지인이 간암 투병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 그 성도님이 하용조 목사님께 시간이 되면 심방을 와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한다. 워낙 바쁘신 분이리라 기대조차 않았는데 얼마 뒤 하용조 목사님께서 공항을 가기 전에 시간이 30분 정도 난다며 병원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다. 그리고 그 지인의 병이 나아졌다고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귀하다.

나는 요즘 아파트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월 한 번 나가서 아파트 주변을 정리하거나 중랑천을 청소하는데 꽤 재미 있다. 성도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 2023년에는 뿌리가 되고, 전도하는 나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

동행(同行)



염바나바, 이사라 선교사
(중동A국)

중동 사역자의 삶은 난민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중동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한 난민이 늘 있었다. 우리 가족이 요르단에 정착한 1999년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이었는데, 2000년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했다. 그 여파로 자국을 떠난 이라크 난민들이 요르단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서방 국가로 이민을 가기 위해 잠시 머물던 이라크 난민들에게 남편이 짐을 놓아주며 전도했다.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시리아에서 잠시 살았다. 그런데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도 난민 행렬에 끼어 요르단으로 피난했다.

요르단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들은 전쟁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사람들이다. 피난 갔다가 돌아왔더니 살던 동네가 불타 없어지고, 폭격이 끝난 줄 알고 하루 먼저 들어온 식구들이 처형당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아이와 동네 아이들을 집안으로 대피시키고 홀로 죽은 엄마를 둔 아이도 있다. 이처럼 요르단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

유엔(UN)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여러 이유로 그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피난 온 사람들은 늘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기에 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린 남자아이들은 장 보는 사람들의 집을 수레에 실어주고 돈을 벌었고, 여자들은 집에서 깃털단과 같은 식물(물로키야)을 다듬어서 먹고 있는데 필요한 재정을 보충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종일 온 식구가 매달려 하는 일이지만, 나는 겨우 몇 시간 도와졌다. 그들은 나의 그 작은 도움마저 고마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전하는 복음을 기꺼이 들어줬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날마다 그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롬12:15)는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웃고 싶었다. 나의 난민 친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부부는 요르단에서의 난민과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중동A국으로 자리를 옮겨 제2의 난민사역을 하고 있다. 나와 성경공부를 하는 마리암과 그녀의 며느리는 5년 전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밀입국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때 가족이 둘로 나뉘었다. 한쪽은 그리스, 다른 한쪽은 A국으로 송환되었다. 5년째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깊은 한숨과 고통을 하나님만이 아시리라. 마리암과 그녀의 가족은 험한 피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 마리암은 예수님을 가족에게 전하고 있다.

우리 부부는 청년의 때에 복음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것을 전하려고 이국땅에서 30년 동안 나그네길을 걸었다. 아랍 난민들이 중요한 것들을 잃고 떠난 이 길에서 그들이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과 우리 부부는 소중한 것을 팔거나 잃었고,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들이 인생 나그네길에서 얻은 귀한 보물로 인해서 삶의 소망과 힘을 얻기를 바란다. 천국에서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부부는 이 땅에서 그들과 나그네길을 동행한다.

신앙에세이



구혜미 목사
(한터공동체)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도노트가 있다. 그 기도노트에는 ‘2008년 1월 8일’에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다. 2008년은 내가 신학대학원 졸업반이 되는 해였다. 이제까지 사역을 돌아보기 위해 휴학과 복학을 앞두고

있었다. 마침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장로회신학대학교 경건훈련원인 ‘은성수도원’에서 6일 동안 영성훈련을 받았다. 그 영성훈련은 하루 80분 침묵기도를 다섯 번 하고, 기도내용과 반추기도를 적어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영성훈련에서 묵상하며 기도했던 본문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신비에 관한 구절이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는데 기도가 쉽게 되지 않았다.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끊임없이 물으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질문할 것을 권유하셨다. 교수님의 지도에 힘입어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

“2천 년 전 하나님이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오셨다면, 지금은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로 바뀌었다. 나의 질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북한”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애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실감도 느껴졌다. “잃어버린 곳! 살려야 한다!”는 너무나도 긴박하고 간절한 부르심이었다. 그날의 기도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8년 1월 8일 나는 북한선교의 소명을 가

2008년 1월 8일

지게 되었다. 그날을 계기로 내 삶과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2015년 탈북민들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Vision Fellowship Center(대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라는 곳을 갔다. 그 전시관은 북한에 파송한 캐나다 선교사들의 자료를 전시해놓은 곳이었다. 그 전시관을 둘러보며 북한에 수많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던 캐나다 선교사들의 삶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북한 땅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동이 전해졌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땅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신지가 느껴졌다.

2008년 1월 8일 했던 기도가 생각났다. 평양 장태현교회가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있는 만수대가 된 가슴 아픈 현실과 하나님의 상실감이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에서 시작된 북한선교

로의 부르심이 탈북민사역으로 이어졌다. 내가 탈북민들과 함께 한 지 13년이 흘렀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웃었다.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랐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것은 2021년부터 등촌동에 위치한 한터공동체를 섬기게 된 것이다.

한터공동체에서는 매주 예꿈(어린이)예배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네 번 예배를 드린다. 한터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북한을 떠난 탈북민 지체들과 함께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일 것이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롬 12:15).

한터공동체를 섬기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기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길, 진리, 생명

◆ 1월 16일 월요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24~26

이재훈 목사

죽음의 종노릇 하게 된 인간이 노력해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존

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이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성육신해 오심으로써 피조물 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능력이 더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역설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염세주의적으로 빨리 죽어서 허무한 인생을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 이후 주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전하며,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땅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거라고 말합니다. 아주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생명이 소중한 까닭은 이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7일 화요일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53~58

이재훈 목사

예수님은 죄인 된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의 그늘,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피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떠나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찾아오신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전달될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믿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믿음을 선물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오늘 본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했다고 좋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설명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시작됩니다(요 6:44).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끄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약 1:18).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요 6:45).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는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연결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요 6:47).

생명을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입니다(요 6:48~51).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양식으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뿐입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믿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 새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살과 피가 될 수 없는 것들은 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구토입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면 강제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8일 수요일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0:7~10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연합하는 삶 속에서 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8절을 보면 이 구원의 문은 “열린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며, 그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열린 문인 동시에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합니다. 왜 열려 있는데 좁은 문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끊임없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고방식, 세계관으로는 절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은 때로 험해 보입니

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적질하려 하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사단의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문, 구원의 문, 열린 문, 좁은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은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일차적으로는 우리 삶에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와 바람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주시는 것입니다. 공허함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만 기쁘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상에 저항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데올로기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낙태를 당연시하는 시대에서 생명을 지키려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풍성한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9일 목요일

부활 생명

요한복음 11:17~27

이재훈 목사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부활이요 생명”(25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신 걸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과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그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곧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복수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일여날 일을 미리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을 때 슬픔에 사로잡힌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21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23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24절). 마르다는 죽음의 그늘에 있어서 아는 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요일 1:2)이

라고 선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요일 5:11~12).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좋은 전염’(Good Infectio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에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그늘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1월 20일 금요일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2:23~26

이재훈 목사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할 진리가 있고, 얻어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도 영광을 회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칭의의 구원’이라 하고,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차 온전케 되는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치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살고, 옛사람과 싸우며, 옛 자아의 영향력과 거룩한 싸움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학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옛사람을 붙잡고 옛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것을 미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죄 가운데 있는 자연적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선 순위를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선입니다.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는 옛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때로 육신에 속한 옛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실재합니다. 영원한 영광도 실재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망은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고, 절망하는 것은 영광에 대한 갈망의 그림자입니다. 영광이 없으면 왜 사람들이 실패감과 좌절감,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영광이 있어서 수치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그 좌절과 상처는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별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삼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센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임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한국어 읽기 교육용 도서 기증 요청 용도: 이주민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한국어 읽기 교육용 모집: 1. 혼민정음 아아어여, 2. 남남 한글 가나다, 3. 개구쟁이 가나다, 4. 가나다의 맛 있다, 5. 생일 축하해요 가나다, 6. 숨바꼭질 가나다, 7. 글자없는 그림책 하나, 8. 나쁜 말 이 불쑥, 9. 구워 주세요 문의: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031-8077-9110)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 모집 인원: 정규직 1명 업무: 인사(허입), 훈련행정 장소: 양지 Acts29비전빌리지 3층 근무: 화~토 문의: 070-4464-8102 한터공동체 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집 일시: 매 주일 오전 9시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분야: 피아노 반주자 1명 문의: 오은철 간사(010-7107-5270) 일대일 양육자반 주일 오전 이영근 장로반 일시: 1월 29일~5월 14일 매주 일 8:00~10: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Acts29 문의: 010-4731-6514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음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음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아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안드로이드/프론트/백엔드 개발자 각 1명, 큐티지 편집 및 기획, 집필, 교정교열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	--	--	---	---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전

O42. 825. 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 565. 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 651. 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 437.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 475. 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지

O31. 331. 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CGNTV 설 특집 콘텐츠 온가족이 함께 은혜를 누리세요

1.21

목
여
예

영화 <폴스 프로미스>

미국 남부에 최초로 인종 통합 교회를 세워 흑인과 백인의 경계를 허문 목회자 '폴 홀더필드'의 감동 실화

오후 8시 40분 방송

▶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1.22

일
여
예

다큐드라마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의 새벽별>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신학자 존 위클리프의 삶과 가르침을 다룬 다큐 드라마

오후 10시 20분 방송

▶에서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1.23

화
여
예

<더 멋진 당신>

한국 사회의 리더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CEO 맞춤형도집회

오후 7시 30분 방송

1.24

화
여
예

영화 <샤론컵밥>

'샤론컵밥'의 사장 은혜와 탈북자 알바생 지숙, 자라온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음악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오후 3시 40분 방송

1.24

화
여
예

영화 <페이스 라이크 포테이토>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농부 앵거스가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남아공에 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숭한 역경을 이겨내며 삶의 희망을 지켜나가는 여정을 그린 감동 실화

오후 5시 30분 방송